

### 한국전력공사

#### 유망 전력벤처기업 집중 육성 전력용 기자재 제조업체 대상

한전은 전력분야의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유망전력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키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대상업체 공모에 나섰다.

공모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한전에 전력용 기자재 제조업으로 등록된 벤처기업으로서 직전 사업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10% 이상인 업체이거나 한전 또는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아 전력용 기자재의 연구개발에 성공하고 실용화한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2년간 평균 또는 직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한전 납품비율이 50%이상인 업체이다.

유망 전력벤처기업에 선정되면 연구개발과제 제안시 우선선정 및 지원을 우대하고 신개발 제품의 시험사용 지원 및 시험설비 이용편의 제공, 신개발 제품 2년간 우선구매 보장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4월10일까지 한전본사 중소기업기술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신청방법 : 소정 신청서 양식에 의거 신청.
- 신청서식 : 별첨 유망전력 벤처기업 선정 신청서를 활용
- 신청접수처 : 한전본사 중소기업기술지원팀(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 접수마감일 : 98년 4월 10일
- 문의 : (02)3456-4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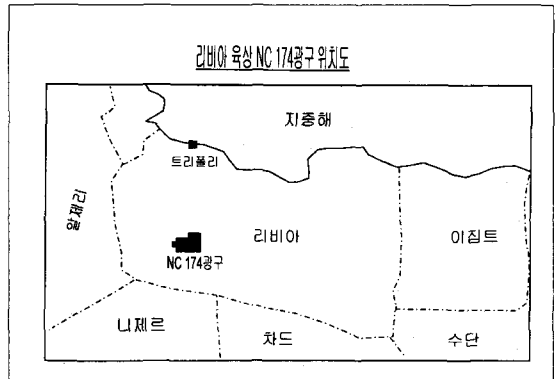
### 한국석유개발공사

#### 리비아 油田 年内 원유생산 개시 NC174광구 하루 3만배럴 규모

지난해 10월 매장량 10억배럴 규모의 초대형 유전(油田)을 발견한 리비아 NC174광구에서 연내 첫 원유생산이 개시될 전망이다.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지난해 석유발견에 성공한 시추지점(Elephant 구조)으로부터 남쪽 약 3.5km 지점에 제1차 평가정을 시추한 결과 당초 예상을 능가하는 양호한 저류층을 확인, NC 174광구의 원유생산을 최대한 앞당겨 올 4/4분기부터 日産 3만배럴 수준의 원유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油開公은 이번 대규모 유전을 확인한 지역과 인접한 유전지대(NC 115광구)에서 지중해 연안 수출항까지 약 7백80km에 이르는 송유관을 운영중에 있는 등 원유생산에 따른 기반시설이 확보돼 있어 개발여건이 매



## 외연사 동경

우 양호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油開公관계자는 「이번 평가시추결과 저류층의 품질이 양호해 이 지역에서만 최소 5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또한 두터운 저류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10여개 이상에 달하는 여타 유망지역에서의 새로운 유전 발견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油開公은 금번 원유 생산규모가 확인된 지역부터 생산에 들어가 올연말 日産 3만배럴을 시작으로 오는 2003년경에는 日産 13만배럴 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 90년 12월 사업에 참여한 리비아 NC 174광구의 한국측지분은 33.3%(유개공, 대우, 현대종합상사 각 8.3%, 마주코 통상 5%, 대성산업 3.3%)이며, 영국 라스모(Lasmo)社와 이태리 아지프(Agip)社가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석탄산업지원등 4개사업 중점 추진

폐광진흥지구 대체산업 6백억 지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98년도 사업계획을 통해 석탄산업 지원, 폐광지역 광해 복구 및 환경개선사업, 폐광지역 진흥을 위한 개발사업, 석탄 및 연탄의 유통관리와 소비자 보호 등 4개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석탄산업 지원과 관련 비경제탄광에 대해 90억원을 폐광지원비로 지급하고 전년대비 10%이상 감소한 장기가행탄광에 대해선 총 3백30억원의 감산지원금을 투입키로 했다.

또한 석탄 및 연탄의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보전코자 2천6백억원을 가격안정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탄광근로자 1인 2자녀에 한해 총 1백70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동해 화력발전소의 안정적인 무연탄 공급을 위해 3백20억원을 들여 무연탄 전용 수송화차를 제작할 계획이다.

폐광지역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전국에 방치돼 있는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사업에 총 3억3천6백만원, 산림훼손지 복구 및 폐석유실 방지사업에 30억2천8백만원을 들여 복구하고, 오염된 갭내수 정화사업에 22억2천3백만원을 들여 영동탄광 등 6개소의 폐광갭내수를 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반침하 방지사업에는 소도, 화전, 통리 등 10개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보강공사 등에 총 26억3천8백만원을 투입하며, 인접한 폐탄광으로부터 가행탄광의 갭내에 유입된 물을 양수하는데 총 4억8천2백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폐광지역 진흥을 위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진흥지구내 제조업을 창업 또는 확장하거나 진흥지구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6백억원의 대체산업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석탄광산 부녀자의 유휴인력을 고용해 광외소득을 증대코자 부녀자복지시설에 총 20억2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석탄 및 연탄의 유통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태백등 5개 지역사업본부의 업무체계화를 통해 석탄 및 연탄 품질사업부와 부정탄 유통방지를 위한 관리업무를 강화함은 물론 연탄연소기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S K (주)**

**올 매출 12%늘려 12조원 확정**

고부가제품 개발 해외사업 강화

SK(주)는 석유제품 소비감소등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금년 매출목표를 작년보다 12% 늘어난 12조원으로 잡고 고부가제품 개발과 해외트레이딩사업 강화등 공격경영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저수익·비핵심사업의 구조조정과 경비 30% 절감등을 통해 수익기반을 강화하고 고객서비스 제고와 품질차별화로 IMF 불황을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SK는 지난 3월초 금년도 경영목표를 이같이 확정하고 석유사업에서 9조2천억원, 화학사업 2조3천억원, 유허유 2천8백억원, 석탄 및 유전개발에서 2천2백억원의 수입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9천억원을 투자비로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석유사업은 내년으로 예정된 정유업의 대외개방에 대비, 셀프주유소를 1천개까지 확대하고 주유소등에 대한 품질점검활동을 지난해 200회에서 350회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화학사업은 신규설비투자보다 기존설비의 생산효율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복합수지 및 생물공학기술을 응용한 기능성 제품과 의약 등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유허유는 품질우위를 바탕으로 미주·유럽 지역의 신시장을 개척, 선박용 벌크제품 수요처를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SK는 또 유전개발로 지난해 8백40억원

의 투자수익을 올린데 이어 올해는 8백억원을 목표로 잡았으며, 싱가포르 런던등 6개 해외지사망을 통한 원유 해외트레이딩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 진단요원 기술교육 실시**

기술향상과 실무 적용능력 배양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2차에 걸쳐 에너지관리 진단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진단요원의 기술향상과 현장 실무 적용능력을 배양키 위해 실시된 이번 진단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에는 공단·진단기술요원 30명과 동진컨설팅(대표: 한상윤)등 9개 민간 진단업체 진단요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주로 교육내용으로는 유틸리티 에너지절약 기술, 에너지관리 진단기술, 전기 기초이론, 전기진단 기술실무, 내화물 및 단열재, 산업체 공조시설, 팩케이지 열병합발전 및 공기압축기 최적 제어기술, 히트펌프 최신기술, 고성능 요로·열교환기·소각로의 이론 및 견학 등이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 진단기술처에 따르면 지난해 62건의 용역진단을 실시, 총 115,518 toe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절감액 기준으로 2백21억5천1백만원에 해당되며 업체당 약 10%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중공업(주)

#### 火電 황·질소 동시제거 설비 개발

에너지 시험연구동내 설치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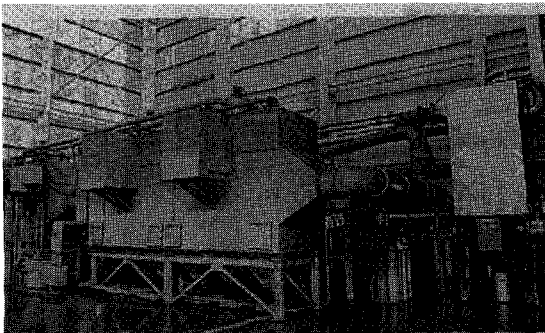
한국중공업은 화력발전소용 플라즈마 탈황·탈질소장치의 파일럿 설비를 개발하는데 성공,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한국중공업 양중길 기술연구원장은 지난 2월 11일 총 60억원을 투자한 탈황·탈질소장치의 파일럿설비를 에너지 시험연구동내에 설치, 가동중이라고 밝혔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탈황·탈질소 설비가 실제로 가동되기는 이번이 세계 처음이다.

이번에 개발한 파일럿 설비는 0.5MW급으로 한중측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10MW급 상용제품을 개발, 발전소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의 황성분과 질소성분을 한꺼번에 걸러낼수 있는 장치로 내년부터 모든 화력발전소에 장착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중이 개발한 플라즈마 탈황·탈질소 설비는 이온을 충돌시키는 방법을 사용,



탈황률과 탈질소율이 각각 95%와 80%에 이르는 등 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2대의 설비를 합쳐 설치면적을 줄일수 있을 뿐아니라 전력소모도 적도록 설계됐다.

한편 양중길 기술연구원장은 「이번 파일럿 설비 개발로 세계 최첨단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국내는 물론 동남아 중동 등에 건설되는 화력발전소에도 이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 Power-21운동 선포 1주년 종합평가

기업문화 정착 분위기 조성 기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월 18일 공사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인 VISION 2020의 효과적추진을 위한 POWER-21운동 선포 1주년 종합평가 대회 및 제2회 경제살리기 실천행사를 개최했다.

긍정적사고(P), 열린마음(O), 자발적실천(W), 효율적 절차(E), 직원·고객·사회만족의 실천(R)으로 VISION 2020의 효과적추진을 위해 선포된 실천적인 의식개혁운동인 POWER-21운동의 추진으로 기업문화의 정착, 전사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 회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제2회 경제살리기 실천운동으로 도서류 알뜰구매시장과 금모으기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올해에도 POWER-21운동으로 경조사비 거품빼기 운동, 차량요일부제 운동, 대화방 신설 등을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 삼성엔지니어링(주)

#### 이집트 SIDPEC社 건설프로젝트 수주 2억달러 규모 2000년 7월 완공

삼성엔지니어링은 이집트에서 대형 유화플랜트 건설프로젝트를 따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월말 이집트 정부 산하 석유화학회사인 SIDPEC사가 발주한 선형(線形)저밀도폴리에틸렌(LLDPE)공장 건설프로젝트를 2억달러에 턴키방식으로 수주, 이집트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주의 자체자금으로 이루어지는 이 프로젝트는 이집트 나일강 하류의 알렉산드리아지역에 연산 20만t규모의 LLDPE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설계, 기자재구매, 시공, 시운전 등 공장건설의 전과정을 책임 수행해 오는 2000년 7월 완공할 예정이다.

LLDPE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원료인 에틸렌을 중합시켜 만드는데 식품포장재(랩류), 농축산물 포장재, 파이프부식방지 코팅재등의 원료로 쓰인다.

한편 삼성엔지니어링은 기술선인 영국 BP사의 공법사용인증업체로 그동안의 LLDPE 공장건설 경험을 인정받아 사전 입찰자격심사(PQ)도 거치지 않은채 입찰에 참가해 독일 루르기, 미국 포스터윌러 등 선진엔지니어링업체를 제치고 이 프로젝트를 따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6월 이집트 국영 칼다석유화학회사가 발주한 2억7천만달러 규모의 가스처리 플랜트에 이어 이번 LLDPE 공장건설 프로젝트 수주로 이집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 앞으로 중동지역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한국전력기술(주)

#### 한국표준형 원전설계 계량화 주력 원전 성능향상 전력기술기준 정착

국내 유일의 발전 플랜트 종합설계 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은 올해 핵심사업을 한국표준형 원전 설계 계량화에 두고 있다.

지난해 원자력사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원자력연구소로 부터 원자로 계통설계사업을 이관받아 핵연료 설계사업을 제외한 원전플랜트 종합설계사로 자리를 굳힌 한국전력기술은 올해 계속 사업인 원전 성능향상 이외에 고리 1호기 설비 개조사업, 한국표준형 설계 계량화, 원전 해외 수출, 전력기술기준 정착, 종합전산화사업을 중심사업으로 펼칠 계획이다.

울진 3호기와 월성 3호기가 6월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고, 울진 4호기와 월성 4호기의 핵연료 장전도 9, 10월 계획돼 있으며,



**LG에너지(주)**

**1천4백억원 규모 차관 도입 계약**

당진 LNG복합화력 설비자금 활용

IMF영향으로 신인도가 하락, 최근 재계가 해외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LG에너지는 보기드문 호조건으로 자금을 조달 발전소 건설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경쟁을 통한 민간발전사업자 1호인 LG에너지는 지난 2월 13일 독일재건은행과 금리리보(LIBOR)+0.65%, 3년거치 12년 분할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1억5천3백만 마르크(한화 약1천4백억원)의 차관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의 이번 차관도입 조건은 현재 국내기업의 금융환경에서는 이례적인 호조건으로 그룹사인 LG의 대외 공신력과 민간발전사업 수행자로서의 사업능력, 그리고 가스터빈 등 발전설비 공급사인 지멘스(Siemens)의 보증이 바탕이 된 결과로 LG에너지는 분석했다.

그러나 해외차관금은 총 사업비 3천3백30억원의 약 45%로 LG에너지는 이 자금은 설비 구입비로 활용하고 자기자본 이외의 약 30% 자금은 한국산업은행을 주간사은행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추가 조달 건설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LG에너지는 지난 96년 7월 국내 최초로 LNG복합화력 민간발전사업자로 선정, 충남 당진군 아산국가공업단지 부곡공단내에 50만kW급 발전소를 2001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10월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진 5, 6호기 본관 기초 굴착 공사도 10월 착수할 예정으로 가동 원전의 성능향상사업 및 건설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관심을 끄는 사업은 경수로 1백만kW급 한국표준형 원전의 설계 개량화사업으로 원자력처는 완성된 설계를 재검토해 공사비 절감, 시공 편의성, 운전 및 유지 보수성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모두 3단계로 나누어 실시, 올해는 그 첫단계로 오는 11월 완료 계획이다.

원전 해외수출 사업은 IMF한파를 극복키 위한 최선의 사업으로 ABB-CE사와 공동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 원자력 관련 기술과 플랜트 설계를 직접 수출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우리 고유의 전력기술기준(KEPIC)의 실제 적용사업으로 울진 5·6호기의 기기 구매 기술 규격서 작성에 적용중으로 올해에는 집계된 문제점을 분석해 신규원전사업 적용에 무리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전 도면, 문서를 CD-ROM화해 완전 전산화하고 울진 5·6호기 사업에서는 선행호기의 플라스틱 모델 대신 3차캐드(CAD) 모델을 이용, 설계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기술은 앞으로 원전 설계에 3차원 캐드시스템, 엔지니어링 DB시스템 및 도면 관리시스템 그리고 공사 및 시공 현황을 상시로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적용해 업무 전산화에 따른 설계 품질 향상작업을 광범위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한 전 기 공 (주)

### 중장기 기술개발 본격 추진

발전설비 정비고급화 해외수주 강화

한전기공은 올해를 「중장기 기술개발 본격 추진 및 개발성과 수확의 해」로 정하고 정밀 진단기법 및 해석평가를 비롯한 제어계통정비 등 발전설비 정비 고급화, 산업재산권 출원 확대, 원자력 정비기술센터 조기 정상화, 해외수주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비사업 15년째인 올해를 미래의 자산인 정비사업 연구개발 강화의 적기로 보고 투자비를 과감히 증액, 과거 기술개발실 중심의 업무형태에서 벗어나 산·학·연 공동연구체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원자력 장수명화 연구등에 대해서는 한전과의 협동연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연구개발 결과가 도출되는 해인만큼 개발기술의 현장 적용시 문제점을 보완해 완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사업화를 촉진 고품질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고유기술 확보 차원에서 추진중인 제안제도, 산업재산권출원, 전국 사업소 기술개발과제 수행사업을 강화하면서 올해 산업재산권 출원목표를 1백건으로 상향 조정, 기술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G/T 정비센터 등 3개 사업소가 ISO 9002를 획득한 것을 발판으로 제어계측 분야, 송변전 및 신규사업분야에도 품질보증 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전기공은 올해 매출신장율을 22%로 설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고품질 정비가 바탕이 된 사업 다각화로 한전의 발전설비 이외에 일반산업설비, 토건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의 확대 및 참여로 현재 수행중인 수·화력 발전소 이외에 원자력, 공공시설물 안전 점검 및 정밀진단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사업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계획예방 정비공사를 완벽히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등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 매진, 실적을 배가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정예요원 육성과 해외발전사업체, 국내 발전설비 제작사 및 해외업체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해외 에이전트를 통한 수주 정보 수집의 밀도를 높혀 나갈 계획이다.

## 포항종합제철(주)

### 냉연강판 장기공급 계약 체결

중 청다오하이어社 4만톤 공급

포항종합제철은 지난 2월 중순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 청다오하이어(靑島海爾集團公司)社와 냉연강판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중국 산둥성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포철 沈載剛 마케팅본부장과 청다오하이어 그룹 武克松 부총재가 참석했다.

이에 따라 포철은 올해 청다오하이어社에 연간 4만톤의 냉연강판을 공급하게 되며, 계약 유효기간인 1년을 지나 추후 별도 통지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청다오하이어社는 84년 냉장고 생산을 시

## 회원사 동정



작으로 현재 냉동고, 에어컨, 세탁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 대형 가전메이커로 연간 냉연강판 소요량이 5만~6만톤에 이른다.

포철은 93년부터 거래를 시작해 96년에는 연간 1만2천톤의 냉연강판 공급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포철 마케팅분부는 앞으로도 우량 수요자와의 장기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갈수록 치열해지는 냉연 수출시장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한국원자력연구소

#### 액체금속로 · 신형원자로 개발 추진 신기술 개발 해외수출 확대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올해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기술혁신의 해」로 정하고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을 위한 원자력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원자력연구소는 액체금속로 개발, 신형원자로 개발, 환경안전기술개발, 원자력 미래기술 개발, 핵연료 주기기술 개발 등의 과제와

개발된 신기술의 해외수출 확대, 원자력 기술의 산업화, 연구원 창업 지원 등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중이다.

해수담수용 중소형 원자로 개념설계를 올해 완성할 계획이며, G7 과제로 추진중인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실험장치도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경수로 다음으로 활용될 액체금속로에 대해서는 「소듐」 취급기술 등 요소기술 개발을 확대해 우리나라 이용이 60배나 큰 연료 혁명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95년 가동에 들어간 세계 10위권 규모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정상 운영을 통해 핵물질 조사성능 시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중성자 빔을 이용한 첨단 소재물성연구, 신형원자로의 연료개발 촉진 등 원자력 기반 기술확보의 중추 역할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본격 해체작업에 들어갈 연구용 원자로 1·2호기는 해체후 1호기(Triga Mark II)는 기념관으로 보존할 예정이다.

또한 원자력통제기술센터(TCNC)를 활용, 올해부터 구체화되는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 조치강화 국내 적용에 대처하고, 원자력연구원의 경우는 국제원자력기구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국제원자력 연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기 위해 5개 국제훈련과정을 유치해 약 70명의 훈련생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울러 원자력 산업체 요원을 위한 종합 연구원으로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원자력 관련 고급기술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원자력 이용기술 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원전연료(주)

### 전 임직원 품질혁신 결의대회

품질고도화로 국제경쟁력 제고

한국원전연료는 지난 1월 본사 대강당에서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혁신결의대회를 갖고 「전직원의 품질요원화로 무결점 달성」 등 3개항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원전연료는 핵연료 품질결점이 장비나 기술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식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파악하고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 및 비용손실 방지를 위해 장인정신과 품질의식을 철저히 고취시켜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한국원전연료는 품질혁신 실천과제로 품질의 날 운영, 품질제안제도 시행, 청결운동, 1자 3배 품질정신운동을 전사적으로 펼쳐 21세기 「품질의 시대」를 대비하여 품질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林昌生 사장은 이날 대회를 통해 「품질고도화가 21세기 회사 발전의 필수요건으로



ISO 인증의 지속관리와 전사적인 품질혁신 운동 실천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연료를 공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현대정유(주)

### 충남 대산 방향족공장 상업가동

年間 9천만달러 수출 기대

현대정유는 지난해 12월 완공한 충남 대산 방향족 공장의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지난 2월 27일 상업가동을 시작, 본격적인 제품판매에 들어갔다.

96년 4월 착공하여 모두 2천5백억원을 투자해 완공한 이 공장은 벤젠 10만톤, 파라자일렌 30만톤 등 연산 40만톤 규모의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생산하게 된다.

현대정유는 이 공장에서 생산된 벤젠 7천톤과 파라자일렌 4천톤을 현대석유화학(주) 등 국내 유화업체에 이미 초도 출하했으며, 2월초 파라자일렌 3천5백톤의 대만수출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공략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현대정유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파라자일렌과 벤젠의 70~80%를 중국과 대만, 동남아 등지에 수출해 연간 9천만달러의 매출을 달성키로 했으며, 나머지는 국내 유화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현대정유는 이 공장의 상업가동으로 약 2천2백억원의 매출신장을 예상하고 올해의 매출목표를 지난 매출액 3조1천억원보다 약 16% 증가한 3조6천억원으로 잡고 있다.

**포스에너지(주)**

**종합 에너지 전문회사로 도약 발전**

효율적 경영 및 전문기술력 발휘

포스에너지는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전문기술력 발휘를 통해 창사 1년만에 종합에너지 전문회사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먼저 전문회사 전문인 운동을 적극 추진해 수탁 운영 중인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발전설비의 가동률이 수탁 전보다 0.1% 포인트 향상된 92.9%를 기록했으며, 고장 정지율도 1.4%에서 0.5%로 줄어 수탁전과 비교해 64.3% 감소시키는 등 제 운영지표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 설비안정과 무재해 발전을 실현함으로써 발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국내 최초로 가스공사가 독점해 오던 LNG 직도입 사업권을 취득했으며, 전력판매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에너지 전문회사로서의 기반을 마련했다.

포스에너지는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창립 2차 연도가 되는 올해에는 포항제철 수탁설비의 최적운영 체제 유지를 위해 전문회사 전문인 운동을 전사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LNG터미널, LNG발전소 건설관리와 산소공장 등 신규이관 설비에 대해서도 조기에 안정조업을 실현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포스에너지는 지난달 IMF체제의 경영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대책반을 신설

해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성 점검과 재원조달 방안 및 경비절감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 민자발전소 건설사업을 총력 추진함으로써 21세기 초일류 종합에너지 회사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주)**

**인도 HPCL社 대형 탈황설비 수주**

턴키베이스 형태 7천만달러 규모

현대중공업은 인도 국영 정유회사인 HPCL 사로부터 7천만달러 규모의 대형 탈황설비를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이 설비를 설계에서부터 토목, 건축, 자재, 구매, 최종시운전까지 일괄 책임지는 턴키베이스 형태로 수주했다.

탈황설비는 오는 99년 8월까지 인도 뭄바이 HPCL 정유공장에 설치되며, 연간 1백 50만t의 황산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정유공장용 탈황설비 수주를 계기로 국내외 환경설비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연합(UN)이 내년 1월부터 발전소나 정유공장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의 배출규제치를 대폭강화, 국내는 물론 중국, 동남아 지역의 탈황설비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정부도 UN의 대기 환경보전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설비를 발주했는데 현대중공업은 영국의 블랙앤비치, 이탈리아의 테크니몽트 등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다.